

20세기 후반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연구

박길순* · 우해정 · 신윤경 · 김서연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에로티시즘은, 기본적인 자아의 표현수단인 복식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특히, 가치관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에 대한 표현이 대담해진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복식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경향 역시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경향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그것의 표현방법이 시대와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로티시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고 싶어하는 욕구인 절시(Voyeurism), 스스로의 육체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이성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복식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복식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그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는 노출, 인체의 유연한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 몸이 비치는 투명한 천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투시, 움직임에 따라 인체의 일부분을 순간순간 엿보이게 하는 트임,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만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소재 사용 등의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시기적 구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방법의 특징을 각각 여성과 남성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는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여유의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공작 혁명(peacock revolution) 등으로 인해 복식을 통한 자기표현 방법이 매우 과감해진 시기로서 여성은 다리 노출을 통해, 남성은 밀착을 통해 에로티시즘이 표현되었다.
2. 197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하피운동이 전개되면서 합리적인 복식형태가 요구되는 한편, glams과 funks의 영향으로 에로티시즘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처럼 상반된 두 개의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복식의 형태를 통한 에로티시즘보다는 사이카델릭 패턴, 실크, 가죽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1980년대는 포스트모던한 표현양식이 복식에도 보편화되어 androgynous look과 punk

look이 유행하였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어깨 부위의 컷팅, 스커트의 슬릿, 재킷과 바지의 슬래쉬처럼 좀더 과격하고 스트리트적인 방법의 에로티시즘이 트임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하반신 부분의 밀착과 여성스러운 소재가 함께 사용되었다.

4. 1990년대 이후의 복식에는 포스터모더니즘의 영향이 심화되어 노출, 트임, 소재, 투사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에로티시즘 표현 방법이 동시에 이용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수들의 무대 의상으로 등장한 란제리룩이 일반에게 확대되어 속옷의 겉옷화가 보편화되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욱 과감해진 노출과 다양해진 소재를 통해 표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20세기 후반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가벼운 성적 표현으로 국한될 수 없는, 적극적인 자아의 표현이자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